

# 1990년대 주체문학에 나타난 충효이데올로기

김성수(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국문학)

## 1. 문제제기

이 글은 1990년대 북한의 주체문학에 나타난 유교문화적 성향, 그 중에서도 충효이데올로기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북한 문학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전통과 근대를 아우르는 거시적 시각까지 염두에 둔 문제제기적 성격을 띤다. 21세기를 앞둔 세계사가 EU, NAPTA 등과 같이 곳곳에서 지역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장차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한반도 지역이 분단된 상태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그 때문에 남북 우리 민족사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세계사 발전에 뒤지기 쉽다는 지적<sup>1)</sup>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상통한다. 북

---

1) 강만길, “민족통일을 모색하는 국학”, 『21세기사의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서울 :

한을 객관화시켜 거론함으로써 남한과의 평화적 통일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역공동체적 유대를 위한 기초적 이해를 건설히 하되, 종래의 관행과 같은 정치적·경제적 접근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회적·문화적 담론의 장에 복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반도에는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세계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채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북한이 있다. 19세기 후반에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 시장체제에 편입되기를 끝까지 거부하던 조선에 대해 제국주의적 압박이 집중적으로 강화되었듯이 최근에는 마지막 시장 북한에 대한 자본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그런데 1990년대 초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세계체제로의 편입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내적 동인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 문학의 성격을 유교문화의 전통과 관련시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문학에 대한 논의가 학문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이런 시도는 모험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아시아 유교문화와 북한 문학의 상관성을 따지는 일은 논란 끝에 흐지부지된 유교자본주의론과는 또 다른 지난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담론에서 북한을 포용하고 또 유교문화를 거론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 자랑하고 인민의 자주성을 중시한다고 널리 표방된 주체사상의 핵심이 실은 수령에의 충실성이란 미명 하에 주민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반납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sup>3)</sup> 이를테면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

---

삼인출판사, 1999), 272쪽.

2) 최원식,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서울: 창작과비평사, 1997), 403쪽.

3)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 “1990년대 북한 문학과 주체사실주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서울: 책세상, 2001) 참조.

이 혁명의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따르며 충성과 효성을 다하려는 깨끗한 마음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는 식의 진술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sup>4)</sup> 특히 1990년대 주체문학을 보면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 진지의 강화 방안으로 유교 덕목의 이데올로기적 통속화라 할 충효 이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 2. 주체사상과 유교문학의 상관관계

유교문화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창시한 도덕적 이상주의라 할 유교를 사상적 근거로 해서 동아시아 중세사회를 주도했던 전통문화이다. 유교 이데올로그들은 개인과 사회의 윤리, 도덕적 형이상학이 통합되어 있는 포괄적인 인(仁)을 중심으로 한 사상체계를 발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는 사상과 함께 도덕적 규범과 생활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 이유는 유교에 철학적 세계관을 부여하고 유교를 심성 수양의 도리로 확립한 송대 이후의 신유학적 학풍이 고려 중엽에 유입된 이후 주자학 또는 성리학(性理學)이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 한국의 유교를 대표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리학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중시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삼강오륜 등의 윤리도덕이었다.

문제는 삼강오륜, 그 중에서도 충효(忠孝)로 대표되는 유교적 규범이 북한 문학과 관련되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바

4) 『로동신문』, 1993년 1월 28일.

는 유교문화권에서 풍속의 교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법제도를 들 수 있다. 유교의례가 대중생활 속에 확산되면서 전통사회는 미풍양속을 확립했으나, 반면 의례의 형식주의에 빠지는 폐단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선 유교문화의 현실적 현현태이자 생활규범인 충효도 예외는 아니다.)

충효란 군주와 부모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유교의 도덕규범 가운데 가장 중요한 2가지 덕목이다. 충은 원래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 마음을 다하는 정신자세를 의미하는 개념이었으며, 효는 처음부터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가리키는 개념이었다. 그 후 충의 개념이 군주에 대한 신하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충과 효를 아울러 지칭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충과 효가 본질에서 동일한 도덕규범이라는 ‘충효일치’의 사상이 있었다. 충과 효의 동일성은 가부장적 가족 내에서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정신태도와 집권적 정치체제 내에서 군주의 권위에 복종하는 정신태도가 같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정신자세가 길러지면 자연스럽게 관료가 되어서도 군주의 권위에 복종하는 정신자세가 된다는 것이다.

충효사상에서는 군주와 부모의 권익에 대해 신하와 자식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것을 가르치면서도, 한편에서는 군주와 부모의 잘못을

---

5) 여기서 충효이데올로기와 유교문화를 구별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싶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장에 동의한다. “나는 유학 부흥에는 반대하지만 유학을 하나의 엄밀한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에서 필수적인 작업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유학은 근대 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독재정권들이 무슨 충효가 유학의 전부인 것처럼 통속화해서 이데올로기적 국민 동원에 악용해 온 전례 때문에 그 진면목은 오히려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유학은 근대 이전에도 전제왕조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다. 그러나 그 틀 안에서 유학은 다양하고도 풍부한 사상적 넘나들을 지속하면서 동아시아인의 정치적 무의식의 기저를 이루어왔던 것이다.” 최원식,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412~413쪽.

말하는 것이 신자(臣子)의 도덕적 의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유교의 충효사상에서 충과 효의 덕목이 모두 권위주의에 바탕을 둔 도덕규범이면서도 아랫사람의 도덕적 주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효사상은 충과 효를 동일시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자와 군신 간에 현실적 차이가 있다. 자식의 경우는 부모의 잘못을 간해도 부모가 듣지 않을 경우에는 울면서 부모를 따르는 것이 도리이나, 신하의 경우는 군주가 간언(諫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떠나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혈연적·자연적이라면 군신관계는 제도적·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문학에 유교문화의 통속화된 충효이데올로기가 내재해 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주체사상 및 혁명적 수령관에 나타난 유교적 성향의 전통윤리부터 확인하도록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글을 보면 이데올로기화된 충효 개념이 자명하게 생각될 정도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충신과 효자의 기본 징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성심과 지극한 효성은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려는 투철한 립장과 자세를 떠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대해 말할 수 없다 ... 당원들은 혁명적 수령관이 철저히 선 충신과 효자로 키우는 사업은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빛나게 해결된다 ...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가는 것은 또한 당생활을 통하여 수령과 전사 사이에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게 함으로써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울 수 있게 된다.<sup>6)</sup>

6) 김효삼, “당 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 『근로자』 5호(1991), 38쪽.

이는 당원들에게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을 다짐시키는 내용이다.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북한 사회가 독특한 사회주의 체제이면서도 유교적 가부장제의 전통을 뿌리깊이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 아니할 수 없다.<sup>7)</sup>

북한에서는 1980년 이후 문화정책상 사회주의적 원리가 퇴조하고 유교적 성향의 전통윤리가 다소 부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예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 그리고 1990년 10월 24일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이다.<sup>8)</sup> 이와 같이 1950~1960년대에 배제했던 충성과 효도를 강조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라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전통적 가치관이 잠재되어 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sup>9)</sup>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가족과 국가를 일치시켜 보려는 경향은 뿌리깊은 전통을 지녔다. 중국에 국한해서 말한 것이기는 하지만 공(公)과 균(均)의 사상이 중국 사회주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 선행연구(저자는 여기서 한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내가

7) “인민의 아버지”, 『로동신문』, 1981년 2월 13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김일성 동지는 …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지닌 … 우리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이다. 아버지라는 말이 사랑과 존경을 대변하며 … 인민과 지도자 사이의 끊을 수 없는 혈연관계를 표현한 것은 오랜 역사이다. 아버지, 이 익숙한 말은 우리 인민의 끝없는 존경과 충성의 한마음을 나타낸다. … 위대한 지도자 동지가 우리 인민에게 보여 준 사랑은 친족의 사랑이다 … 존경하고 경애하는 우리의 지도자 동지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모든 인민의 아버지이다 … 아버지의 사랑은 … 어떤 이론이나 원칙으로도 설명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인민만이 지닌 가장 고상한 이념적 감정이다.”

8) 조용관, “북한의 가정문화정책과 가정윤리”, 『1994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제2권 (서울 : 통일원, 1994), 47쪽.

9) 위의 글, 63쪽.

보는 바로는 만일 결부한다고 한다면 중국 유교는 오히려 중국 사회주의에 결부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도 있다.<sup>10)</sup> 이런 맥락에서 사회주의 이후에도 중국이나 북한 양쪽 모두, “양반 가부장주의의 전통 속에서의 몰사(沒私)적 충성을 포함한 결합 유대로서의 유교윤리의 산 유상(遺償)”<sup>11)</sup>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우리나라 중국은 과거 유교적 전통에 따라 가정이 확대된 것이 국가(化家爲國)라는 사상에 따라 국가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서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북한 사회 전체를 한 가정으로 보고 그 아버지를 김일성으로 보아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가족관계의 유습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2)</sup>

북한은 1950년대 이래 유교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반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인민의 사상적·정치적 생활과 윤리도덕에 해독을 끼치고, 혁명투쟁을 약화시켜 건설사업과 사회 발전을 방해한다는 인식론적 비판과 함께 이를 신봉하는 것을 금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유교의 실체를 완전 혁파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유교가 지도급 인사 및 주민들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 모두에 깊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유교를 체제유지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유교의 인간 중심 세계관을 수령 중심의 주체사상으로 대체하고, ‘전통적 가족주의적 정향’을 이용한 유기체적 가족국가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거론할 수 있다.<sup>13)</sup>

10) 溝口雄三, 『방법으로서의 중국』(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9), 192쪽, 안병주, “한국의 현대화와 유교”, 『유교사상연구』, 4집(유교학회, 1992), 343쪽에서 재인용.

11) 溝口雄三, 『방법으로서의 중국』(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9), 179쪽; 안병주, “한국의 현대화와 유교”, 『유교사상연구』 4집(유교학회, 1992), 340쪽.

12) 조용관, “북한의 가정문화정책과 가정윤리”, 48쪽.

13) 이현경, “북한의 유교문화 실태 연구”,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하권(민족통일연구원,

유기체적 가족국가관이란 국가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규정하고, 수령, 당, 인민대중을 인간 유기체의 존재로 비유하면서 전통적 가족주의를 통치적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령은 두뇌나 심장의 역할을 하는 인간의 핵심적 유기체이며 바로 아버지와 같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 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에 해당된다.”<sup>14)</sup> 당은 인체에 혈관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수령과 인민을 연결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을 어머니당이라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투쟁을 수행하는 사회구성 요소이나 결코 개개인이 아니라 그 집합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족에 비유된다. 인민대중이 동지적으로 굳게 결합된 사회주의는 수령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사회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회이다.<sup>15)</sup>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란 북한 김정일 특유의 유기체적 정치체제론으로서 유일지도체계의 수령론에서 파생되었다.<sup>16)</sup>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무엇인가? 인민대중은 당의 지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적·정치적 유기체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것이다. 그에 의

1995. 12) 참조. ‘전통적 가족주의적 정향’, ‘유기체적 가족국가관’은 이헌경의 용어이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북한 특유의 정치학 개념이다.

14)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 7. 15.), 『북한 자료집 김정일 저작선』(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160쪽.

15) 윤정수,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주체적 이해”, 『철학연구』, 1호(1993), 35쪽.

16) 김정일은 1982년 3월 31일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육체적 생명이 생물 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0쪽.



하면 개별적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에는 끝이 있고 변화가 있지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한다.<sup>17)</sup>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르면 북한 사회에서는 수령과 인민대중의 관계가 영도자와 전사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하나의 사고, 하나의 호흡, 하나의 운동으로 이어진 혈연적 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수령을 아버지로 모신 사회성원들의 관계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관계로 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지향과 요구는 아버지뻘이 되는 수령의 사상에 전적으로 집대성되어 있다고 한다. 사상의 유일성과 목적의 공통성, 행동과 의지의 통일성에 의하여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정치적 집단에서 수령의 사상은 곧 당의 의지로 되며 인민의 신념으로 된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 최근 종종 보게 되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와 같은 구호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형성으로서만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사회정치적

---

17) 이 이론은 이미 1970년대에 철학이나 사회사상으로 체계화되었지만 이를 문학예술의 전형화 원리와 연관시킨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의 일이다. 김선형, “사회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생활신조”, 『철학문집』, 제4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172~173쪽 참조.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최고 표현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생명인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혁명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 이끄는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수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근본이익, 그들의 지향과 의사를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평도하는 혁명의 최고뇌수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부모에 의하여 주어지는 육체적 생명과는 달리 수령에 의하여 배양되고 키워지는 사회적 생명이다.” “부모는 아들딸들을 낳아 주고 그들을 육친적으로 사랑하지만 수령은 사람들에게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생명, 정치적 생명을 주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늘 보살펴 준다.”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 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육체적 생명보다 몇 천 배나 더 귀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고 보살펴 주는 수령께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는 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가장 숭고한 감정이며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최고 표현이다.”

집단 가운데서 최고의 전형은 수령이며, 북한 사회는 수령이라는 최고 뇌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생물체가 된다는 것이다.<sup>18)</sup>

북한이 이같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강조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기를 낳아 주신 부모를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듯이 오늘의 북한 사회주의가 있게 한 수령과 당을 배반해서는 안 되며, 혁명적 의리로 끝까지 어버이인 수령과 어머니인 당 그리고 자식인 인민대중이 혈연적 관계인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대를 이어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는 군주에게 대를 이어 충성해야 한다는 전통 유교사회의 사회윤리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sup>19)</sup>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주체사상은 우리식의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적 가족주의 전통과 자민족중심주의가 맞물려 서양 학자에게는 유교문화의 통속 형태에 침윤된 국가이데올로기로 규정되는 것이다. 가령 브루스 커밍스는 최근 번역된 한국 현대사에서 북한에 대한 서양 학자들의 통념을 ‘유교/공산주의의 전제군주국’<sup>20)</sup>이라 소개하고 그 자신은 주체사상을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

1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83~98쪽;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서울: 연구사, 1994), 207~209쪽.

19) 조용관, “북한의 가정문화정책과 가정윤리”, 47~48쪽.

20) 브루스 커밍스, 김동노 외 옮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서울: 창작과비평사, 2001), 571쪽.

주체의 실제적인 의미는 항상 한국적인 것을 우선하는, 달리 표현하자면 일종의 민족주의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맑시즘보다는 성리학의 유교에 가깝다. ... 내 입장은 북한이 스탈린의 소련보다는 성리학적 왕국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과장되고 매스꺼울 정도로 반복되는 영웅 숭배로 북한의 정치적 수사는 끝이 없는 듯하다. ... 이것은 공산주의라는 병 속에 담긴 성리학 혹은 모택동의 옷을 입은 주희이다.<sup>21)</sup>

원래 북한에서는 자기들의 충효와 봉건 유교도덕인 충효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정하고 있다. 즉, 도덕적 견해에서 유교는 효자충신과 남존여비사상을 강조하였는바, 즉 아들은 가부장적 부모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신하는 봉건군주에게 무조건 굴종해야 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이것은 모두 봉건 통치 질서를 유지하고 봉건 신분제도를 합리화하는 반동적인 설교이므로,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종교적 및 관념론적 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을 무기력하게 하고 그들에게 노예적 굴종 사상을 주입시켜 근로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반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sup>22)</sup>

1980년대 중반의 『철학사전』에 따르면, 봉건 유교도덕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모에게 맹종맹동할 것을 요구하는 효성이다. 봉건 유교도덕에서는 몸과 가정의 재산은 자기의 소유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성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봉건 유교도덕에서 설교하는 효성은 우리 인민이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전통적 미풍, 인간의 응당한 도리로서의 효성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다.<sup>23)</sup>

21) 위의 책, 586, 589~590, 598쪽 참조.

22)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703쪽.

23)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재출간),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최근에는 봉건 유교사상 및 봉건 유습에 대한 이전과 같은 매도는 줄어들고 비판의 정도도 현저하게 약화된다. 봉건 유교도덕의 기본은 삼강오륜이라 하여 이에 기초한 충효사상을 맹목적이라 하고, 사람들에게 임금을 받들기를 부모를 받드는 것과 같이하라는 가국(家國)일치론을 관념론이라 규정하는 정도이다. 자식에 대한 무원칙한 사랑과 맹목적인 효성은 봉건사회의 낡은 유습이지만 미풍양속 중에서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것은 인민들에게 널리 보급 발전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변모를 드러낸다.<sup>24)</sup>

딱히 역대 사전에 나타난 유교도덕에 대한 약간의 역사적 변모를 논거하지 않더라도 충신 효자의 전형을 1990년대 들어서서 유례 없이 강조하는 최근 북한의 주체문화 담론을 보면 부모/국가에 대한 ‘맹종맹동’이 봉건시대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문학의 전형화 원리를 수령에의 충실성으로 고착화 도식화시켜 강조함으로써 당과 수령(김일성), 그리고 그 대리자인 지도자 동지(장군님)에 대한 맹종맹동과 본질적 변별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1967년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체계로 확립한 후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 궤도에서 벗어나고 1969년 혁명적 수령관이 정착되고 난 후에 충효의 전통적 윤리관이 강조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과 김정일 후계체계 수립 과정에서 국가적 수준의 가부장제가 등장하였다.<sup>25)</sup> 가부장적 충효관을 국

267쪽.

24) 『조선대백과사전』(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9), 335쪽. ‘봉건 유교도덕’, ‘봉건유습’ 항목 참조.

25) 그렇다고 1980년대 문학에 이전보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강화된 충효이념이 곧바로 반영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가부장적 국가관이 개인숭배와 맞물려 그 전의 문학보다 더욱 강화된 충효이데올로기로 나타나는 것은 1992년의 주체문학론과 1994년의 김일성 사망 후 등장한 일련의 문예 창작물이라고 생각된다.

가 가부장제에 교묘히 적용시킨 것이다. 국가 가부장제는 통치자가 주인이며 통치받는 자는 가신이 된다. 그것은 주인이 가신에 온정과 은혜를 주기 때문에 가신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주인에 대한 충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인민대중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으로 표현된 효도의 연장으로 통합된 하나의 새로운 유교사회, 즉 가족국가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셈이다.<sup>26)</sup>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적 가치관 및 행위규범이 유교적 그것들과 동시에 병존하는 생활유형이 형성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유교적 사회주의 국가로 결론짓는다는 견해까지 나올 정도이다.<sup>27)</sup>

### 3. 주체문학과 충효이데올로기의 상관관계

1990년대 이후 김정일 시대의 주체문학이 지닌 유교도덕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김일성 사망 직후에 나온 문예비평을 보자.

26) 이문웅, “북한의 사회문화적 반동-사회조직 및 신앙체계를 중심으로”, 한상복 편, 『한국인과 한국문화-인류학적 접근』(서울: 심철당, 1982), 218쪽.

27) 이현경, “북한의 유교문화 실태 연구”, 96쪽. 이현경의 방대한 논문에 의하면 북한은 유교적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이 논증되지만, 사회경제적 토대와 의 상관관계 속에서 상부구조인 유교문화적 특성만으로 한 사회구체체의 성격이 규정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현대에 와서 사회주의 중국의 학자들은 유교의 유산을 전체주의·관료주의·친족주의·보수주의·남성우월주의의 온상으로 비판하지만, 타이완·홍콩·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유교의 인본주의와 중국 근대화 사이의 상관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중국의 학자들은 사회주의적 맥락 속에서 유교의 인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필자가 북한 주체문화론과 유교적 규범의 상관성을 두고 유교사회주의론의 가능성까지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김일성 동지께서 천만 뜻밖에 애석하게도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이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는 내용이 작품마다에 차고 넘치게 하여야 하며 우리의 운명이시고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감동 깊게 형상하는 것과 함께 그이의 령도를 충성과 효성으로 더 잘 받들어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주체 위업을 빛나게 완성할 결의로 충만된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 감정을 진실하게 그려내는 데 계속 창작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sup>28)</sup>

수령론에 입각한 상투적인 수식어를 감안하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반을 둔 북한 특유의 문학론을 읽어 낼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자기 사회를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대가족체제로 보거나 거대한 생물 유기체로 보는 논리를 펴 왔다. 그러다가 막상 ‘어버이’ 수령이 사망하자, 한 순간 뇌가 없는 생물체가 되어 버린 셈이라 적절한 해명과 대응논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수령=최고 뇌수(腦髓)’의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도 수령의 후계자인 김정일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만이 ‘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이며 이를 고취하는 것이 문학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논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유교문화의 전통과는 관련이 없는지 내재적 비판의 시각으로 접근하기로 한다.

북한 문학사에서 1950~1960년대 이루어진 문학은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이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이었으며, 이것이 1970년대 들어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문학예술로 그 이념과 이론이 바뀐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29)</sup> 그래도 그 시기에는 주체사상에

28) 장영, “시대의 요구와 단편소설”, 『문학신문』, 1994년 9월 30일, 2면.

29)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필자가 사용하는 범칭이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특히 북한 문학에서 스스로의 예술원리를 지칭할 때 쓴 용어로서 동일한 개념이지만 후자가 조금씩 내포를 달리하므로 구별한다. 한편 1970년 이전 북한 비평사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김성수, “사실주의 비평논쟁사 개관”, 『북한 문학신문 기사 목록』(한림대

기초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를 폐기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1992년 이후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전통이 조금씩 비판되어 가면서 아예 ‘주체문학론’으로 대체되는 변모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 문학사에서 1992년의 주체문학론을 계기로 해서 종래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대신 주체사실주의 내지 주체문학으로 용어가 대체되는 과정을 보면, 통치 이념이라 할 수령론을 미학적 범주로 구체화한 것이 눈에 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인용자) 이것은 우리 문학이 창조하는 주체형의 인간 전형을 선행한 주인공들과 구별짓는 기본 징표로, 나아가서는 우리의 주체사실주의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짓는 중요한 징표로 되었다.<sup>30)</sup>

1992년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이 나온 후 학계 비평계의 증진들이 기본 논지를 해설하는 글에서는 우리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인 주체적 사실주의의 달라진 내용에 대한 논의를 보여 준다. 즉, 주체사실주의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변별시키면서 그 중요한 징표로 전형화 원리의 한 구성요소라 할 인물성격의 전형성 기준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세운 것이다.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 가장 새롭게 보이는 이론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문학’론 및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론이다. 이 이론에 대한 이해와 평가야말로 김정일 시대의 주체문학이 지닌 유효도덕, 특히 충효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정치

---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참조.

30) 최연경,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 전형 창조에 대한 완벽한 이론적 해명”, 『문학신문』, 1993년 5월 7일.

적 생명체를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작품에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형상화시키려면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의 원칙 아래 그들의 관계가 혈연적인 관계로 깊이 있게 묘사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충성과 효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그런 인간관계를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작품에 수령을 직접 형상하고 당조직이나 당일군을 설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령, 당, 대중의 관계를 그릴 때, 같은 생각, 같은 심장으로 이어진 어버이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진실하고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실의 진면모를 옳게 형상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온다.<sup>31)</sup> 수령과 인민의 가부장적 혈연관계를 그리는 것이 주체문학의 유일한 형상 대상이요 형상 원칙이라는 주장은 이제 확고해진 것처럼 생각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들에게는 사심 없는 혈육의 관계만 있을 뿐이므로 어버이에 대한 최고의 찬사 이외에는 다른 표현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주체문학은 늘 현실 긍정의 문학으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하다.

사회정치적 생명체과 결합된 창작방법론에 의하면 형상론도 정해진 길을 따르게 되어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충성 및 효성의 결합체가 주체문학의 주인공으로 인물화되는 것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캐릭터화’라고 할 수 있는데, 리얼리즘 미학에서 말하는 전형화 원리와는 달리 관념화·이상화를 예술원리로 생각하고 있는 데 문제가 없지 않다.

작품 구성에서도 사건 전개의 묘미보다는 고정된 캐릭터와 송고미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한다. 이를테면 “아기자기하고 아슬아슬한 사건의 꾸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던 때는 영원히 지나갔”으며, 독

31) 현종호,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주체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 『문학신문』, 1993년 1월 29일.



자들은 문학작품에서 “아름다운 소행, 영웅적 위훈을 낳는 충신과 효자의 심장 속에 남모르게 불타고 있는 그 한없이 숭고한 세계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고 공공연하게 주장된다.<sup>32)</sup>

더욱이 갈등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보면 현실 긍정론이 극단화됨을 볼 수 있다. 즉, 문학에 부정성이 있고 비판성이 있어야 극적 갈등이 있고 흥미를 돋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언급되기까지 한다. 갈등론에 기초한 문학론은 실제 현실에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형성되지 못하였던 지난 시대의 낡은 미학적 사고방식이라는 주장에 이르면 전형적인 무갈등론의 표본을 보는 것 같다.<sup>33)</sup>

주체문학론에서 나타난 현실 긍정에 기초한 무갈등론은 근대 이전의 왕조시대 긍정문학이나 건국신화의 미학을 연상시킨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문학’ 이론에 의하면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최고 뇌수이므로 당원과 인민대중은 그에 충성을 다하는 충신의 전형으로 그려야 한다고 한다. 이는 봉건시대의 ‘천하일가(天下一家)’ 사상 같은 유교적 윤리 규범을 복한 문예학에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미학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학 창작을 할 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무조건 수령, 당, 대중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적 사랑에 기초하여 혼연일체를 이룬 통일체라는 사상을 생활 속에서 느껴지게 형상화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을 정도이다.<sup>34)</sup> 이 규정이 얼마나 무소불위인지 작품 창작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만약 작품에 수령과 당조직선, 당일꾼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 경우에도 무조건 수령, 당, 대중의 관계가 삼위일체의 원

32) 최언경,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전형 창조에 대한 완벽한 이론적 해명” 참조.

33) 리성덕, “예술적 갈등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해명을 준 불멸의 고전적 로작”, 『문학신문』, 1994년 1월 7일 참조.

34) 현중호,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주체문학의 영원한 형상 원천” 참조.

칙에서 혈연적인 관계로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체문학론의 주장이다.

이러테면 영화문학 <도라지꽃><sup>35)</sup>에서는 수령과 당조직선을 전면에서 형상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수령의 관심 속에 있는 자기 고향을 살기 좋고 문명한 고장으로 꾸려 수령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며 충성의 한 마음으로 살며 일하는 주인공 진송림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sup>36)</sup> 영화의 주제는 향토애가 곧 조국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주제는 1990년대 들어서도 북한 영화계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를 거치면서 불어닥친 탈이데올로기의 조류에 맞서 등장한 이른바 우리 식대로 살자는 정치적인 구호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1994년에 나온 김용일의 단편소설 <충복>은 김정일의 세심한 현지도에 의하여 인민의 가족관계, 결혼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한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김정일에 의하여 시농기계공장 조립작업반장 김철수가 6·25전쟁 때 아버지의 불미스런 행적 때문에 깊은 상처가 생긴 어머니 백길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대학 동창이자 공장 동료인 김춘미와의 결혼도 어렵사리 이룬다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이다.<sup>37)</sup> 이 과정에서 중앙에서 멀리 국경도시의 일개 노동자의 삶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당 최고지도부의 세심한 현지도가 위력을 발휘한다. 또한 중간 관료인 도당 책임일꾼 김병주의 인민 위에 군림하려는 관료주의적

---

35) 이 영화는 1987년에 열린 북한 유일의 국제영화제인 평양영화제 제1차 대회에서 작품상을 받을 정도로 1980년대 북한 영화 최대의 성과작으로 꼽힌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도시에 나가 살자는 애인의 권유를 물리치고 산촌인 고향에 남아 그곳을 지키는 과거 우리의 새마을운동 성공담과 흡사하다. 『2001 북한연감』(서울: 연합뉴스, 2000), 844~845쪽.

36) 리기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수령, 당, 대중의 3위 일체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조선어문』, 1호(1993), 14쪽.

37) 『문학신문』, 1994년 10월 14일.

작태가 비판받기도 한다.

반면 “식의주 걱정을 모르고 모두가 화목하게 살고 있는 사회주의 대 가정 속에 지금까지 그들을 안고 사는 일부 사람들이 존재하는 문제를 두고” 김정일이 직접 국경도시까지 가서 일개 노동자의 사생활까지 배려하고 현안을 해결해 준다는 수령형상론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수령 - 당 - 인민이 하나인 사회에서 최고지도자가 인민들의 사생활까지 신경 쓸 정도인 만큼 여타 중간 관료들도 반성하고 일을 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발언에서 직접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우리 모든 일꾼들이 참된 인민의 총복으로서 진실로 인민을 위해 복무할 때 온 나라가 더욱 화목한 가정으로 일심단결된 위력한 나라로 될 수 있습니다.<sup>38)</sup>

위와 같이 김병주 같은 중간 관료를 비판하고 반성케 하며, 김철수, 김춘미 같은 처녀총각 노동자들에게 “효자란 무엇이겠소. 어머니가 아파하는 심정과 근심걱정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풀러드리는 사람이 곧 효자가 아니겠소. 결혼식을 빨리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사시오” 하는 지도자 동지의 격려에서 이 작품의 의도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사회주의적 가족주의에서는 혈연적 관계보다 동지적 관계가 더 중요한 것만큼 가족들 사이의 육친적 사랑은 어디까지나 동지적 사랑에 복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되는 것이다.<sup>39)</sup>

---

38) 『문학신문』, 1994년 10월 14일.

39)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87. 10. 1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16쪽, 조용관, “북한의 가정문화정책과 가정윤리”, 40쪽에서 재인용.

보통 사람을 넘어서서 완벽한 인간, 위인이자 영웅으로 그려지는 수령의 형상, 어떠한 고난에도 배신을 모르는 인민들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그런 시대정신의 흐름에 역행하는 하급 관료의 관료주의적 작폐에 대한 비판 등의 주제의식을 통해 수령, 당, 인민대중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충신과 효자’의 인물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제목도 ‘충복’이라 하여 1990년대 주체형의 인간 전형을 나름대로 형상화한 셈이다.

충효이데올로기는 일정한 정치집단 내부의 모순과 부조리를 가족애의 이름으로 감추고 대신 외부 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공격성으로 자체 단결을 기할 때 위력을 보인다. 1990년대 주체문학은 피해와 억압의 기억을 자신의 정체성 확립의 주요한 심리적 기제로 삼아왔다. 요컨대,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자로서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은 북한의 유아론(唯我論)적 자기중심주의<sup>40)</sup> 형성에 핵심적인 정서적 자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 속에서 자신을 한없이 순결하고 무구한 것으로 형상화하는 심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제국주의의 민족주의와는 다른 형태로 피억압자의 억눌린 욕구를 자극하는 측면을 다분히 지니면서 하나의 집단적 형태로 자리잡는다. 그것은 내부의 갈등과 모순을 민족 지상의 감상으로 봉합하면서 강제적 통합의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는 한편, 외부에 대하여는 일종의 보상심리의 성격마저 띠는 배

---

40)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583~585쪽. “김일성 시대 월권이 전에 이미 조선의 신유학은 인간의 신체를 적절한 생리학적 조화를 필요로 하는 유기체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유기체적 정치사상은 끊임없이 선전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북한에서는 이를 영어로는 ‘juche idea’로 표기한다)에 구현되어 있다.”(중략) “언뜻 보면 주체는 쉽게 이해된다. 주체는 정치, 경제, 국방, 이데올로기에서의 자립과 독립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체를 통해 주관적인 유아적 마음상태, 즉 올바른 행동보다 먼저 있어야 하고 또 이를 결정짓는 올바른 생각을 배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또한 근대적인 동시에 한국적인 것을 규정하는 수단으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중략) 주체는 북한의 민족적 유아론을 구성하는 애매한 핵심이다.”

타적 공격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주체문학은 사실주의를 그 창작방법으로 하면서 이른바 낭만주의, 모더니즘과는 대립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창작의 미학적 원리를 무엇으로 명명하든간에, 주체문학을 이끈 강력한 정서적 본질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당위적 미래를 상상하는 혁명적 낭만주의였다고 생각된다. 낭만주의에서는 신념을 위한 희생(순교), 가치에 대한 헌신 같은 것에 최대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삶의 방식이 등장했고, 이것은 주정주의로의 전환, 원시적이고 먼 것에 대한 갑작스런 관심, 국가에 대한 숭배, 초인, 천재, 영웅에 대한 찬미, 심미주의 등을 불러일으켰다. 절대 다수의 소박한 인민대중들 속에 그리고 그들의 집단적 전통 속에 절대선(善)이 존재한다고 믿는 인민주의는 하나의 특정한 원리라기보다는 일종의 신드롬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된 최근 문학작품의 표현을 예로 들어, 체제의 객관적 위기를 주민들의 주관적 의지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낭만적이고 주의주의(主意主義)적인 세태를 보도록 한다. 북한 체제의 붕괴 위기에 대해서 1990년대의 대표적인 소설가 권정웅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된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온 것이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도는 과연 무엇인가. … 미제가 우리에게 가해 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힘에 의한 즉 군사적 위협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봉쇄로써 우리에게 대한 목조르기를 하여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상문화적 침투로 내부 부식에 인한 자멸을 가져오게 하자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다. 여기에 겹쳐서 최근년간 계속되는 자연재해는 실로 치명적인 것이었다.41)

41) 권정웅, “눈보라 만리”, 『천리마』, 1호(2001), 32쪽.

소설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는 1990년대 중후반 북한 체제 위기의 원인은 미국의 군사 위협, 경제 봉쇄, 사상문화적 침투전략, 그리고 자연재해 등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문화와 주체사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부르주아적 사상문화의 침투에 반대하는 철저한 자기검열을 해 온 것이 북한의 오랜 전통이었다.<sup>42)</sup> 체제의 위기가 사상문화적 침투 탓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대내 주민용 방어장치로 사상 검열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추정할 수 있다.

체제 위기의 원인은 자연재해도 있었겠지만 당 최고지도부의 정치사상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오랫동안 자기 사회를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대가족체제로 규정하거나 거대한 생물 유기체로 보는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을 펴오다 막상 ‘아버지’ 수령이 사망하자, 한 순간 뇌가 없는 생물체가 되어 버린 셈이라 ‘뇌사’ 상태에 빠진 체제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대응논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수령의 죽음 이후에도 수령의 후계자인 김정일에 대한 변함 없는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만이 ‘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이며 이를 고취하는 것이 문화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다.<sup>43)</sup>

주지하다시피 김정일은 유교의 전통적인 3년상을 치를 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효성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체제 위기라는 고난의 원인을 미제의 경제 봉쇄와 문화적 침략으로 돌렸다. 효성은 곧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으로 전화되었으며 외부에 대한 적절한 적개심과 배타의식 고취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충효이데올

42) 북한이 남한과 미국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대해 원천적으로 봉쇄한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김성수, “북한의 남한 문학예술 인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 『통일정책연구』, 10권 1호(2001) 참조.

43) 김성수, “1990년대 북한 문학과 주체사실주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서울: 책세상, 2001), 263쪽 참조.

로기는 문학예술을 통해 인민대중에 널리 선전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 숭배를 통한 내부 단속과 외세 배척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1990년대 북한의 충효이데올로기는 일반적인 유교적 충효사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 4. 주체문학의 현실적 배경

지금까지 북한 사회의 지배이념인 주체사상과 그 1990년대적 표현인 주체문학을 유교문화, 특히 그 통속형태인 충효이데올로기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는 모택동 사상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식 사회주의의 독자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관념론은 물론이고 유물론을 넘어서 물질과 의식이 통일적 존재로서 사람을 철학의 중심에 놓은 문제의식은 중국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sup>44)</sup>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에게 주인의식을 강력히 심어 주고, 세계 발전과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체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수령의 올바른 영도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고, 역사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결국 사회 발전 및 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 아닌 수령이므로 그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는 가족을 한 단위로 보는 대가정에서 수령과 인민대중

44) 최원식, “탈냉전 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413쪽.

은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로 되어 있고 김일성은 최고 가부장적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그에 대한 충효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들어서 더욱 이념성이 강화된 북한 문학에서는 이전과는 일정하게 변별될 정도로 충효이데올로기가 강조된다. 가령,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단순한 윤리도덕 규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예 창작의 미학적 원리로까지 전화된다.

1992년 김정일에 의해 체계화된 주체문학론의 핵심은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기초한 주체의 문예관에 입각하여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다하는 주체형의 인간을 최고의 모범으로 그리는 주체사실주의 창작 방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라든가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 수령에 대한 충실성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떤 현실적 의미를 띠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주체문학론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호뿐이고 실제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보다 우위의 초월적인 가치기준에 매몰된다. 주체문학의 창작방법론인 주체사실주의 전형론의 핵심이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귀결된 것을 봐도 이 점은 증명된다. 말단 명령집행자인 피동적 인민대중은 마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듯한 존재로 설정된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주장은 실제로는 수동적 명령집행자인 인민대중의 신민적 상황을 그 반대의 상황으로 숭고화해서 제시한다. 인민대중은 항상 ‘자각적 열성과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설정되며 역사의 주체라고 주장되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이 이상화되고 신비화된 관념의 존재가 되고 만다.

앞에서 정리했듯이 1990년대 주체문학이 내세우는 전형적 인물성격론의 핵심은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긍정적 인물들을 형상화할 때, 무조건



아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에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충신과 효자’로 그리는 것이다. 그 동안 북한에서는 충효와 같은 유교문화를 외세의존적인 사대주의와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봉건 이데올로기로 비판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유교는 사대주의를 적극 고취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 의식을 말살하여 버리려 하였고 또한 명분이나 삼강오륜과 같은 따위의 썩어 빠진 봉건 착취자들의 룬리도덕을 퍼뜨려 놓음으로써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풍양속과 고상한 도덕품성의 발전을 극도로 저해하였다.

우리 당내에 잠입하였던 반당종파 분자들은 부르조아 사상과 함께 봉건 유교사상을 퍼뜨려 근로자들의 혁명성을 마비시키고 안일해이와 소극성을 조장시키고 현모량처주의를 부식시키려 하였다. 봉건 유교사상은 부르조아 사상과 함께 반당반혁명 종파 분자들의 사상적 근원으로 되었으며 그들의 죄행의 본질로 되었다. 그러므로 봉건 유교사상은 현 시기 사상혁명의 중요 대상의 하나로서 그것을 철저히 뿌리뽑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sup>45)</sup>

이처럼 철저하게 비판했던 유교적 도덕윤리와 지금 주체문학론의 충신, 효자의 형상화 요구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알기 어렵다. 실은 과거 그들이 비판했던 중세 귀족계급 ‘양반 통치배’의 봉건적 도덕윤리를 1990년대 이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sup>46)</sup> 왕정시대의 신하 내지 신민(臣民)의 차원으로 몰린 인민대중이 바로 자주성을 지닌 존재라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앙집권적 관료사회의 온갖 문제를 모두 가려버리는 전근대적 발상이야말로 북한 문학의 앞날을 밝게 점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공동체 전체의 가치를 위해서 개

45)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1327쪽.

46) 봉건도덕을 그대로 사용하진 않아도 1970년대에 비해 충효이데올로기에 대한 비난 정도가 현저히 약화된 것은 확실하다. 『조선대백과사전』, 제11권(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9), 335쪽 참조. 1973년의 『정치사전』과 1995년의 『백과사전』의 동일 항목을 비교해 보라.

성을 약화시키는 유교문화의 부정적 양태가 주체문학론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문학에서는 수령 - 당 - 국가와 인민대중 사이를 가부장적 후견 - 피후견의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아버지, 어머니, 효성스런 자식의 관계로 형상화되고 있다. 인민대중은 '자각적 열의와 창발성' 그리고 '충성과 효성'을 다해 화답한다고 설정된다.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 그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요구란 결국 수령의 절대화, 체제의 숭고성과 소명성을 강조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어떠한 저항이나 반발도 도덕적 패륜, 민족에 대한 반역 등 윤리적·정치적 범죄로 만들어 매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북한 지도부는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수령의 사망, 식량난 등으로 인한 체제 붕괴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식 사회주의' 정치·경제 제도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체제 안정을 위한 최대의 방패막이가 군대였기에 '선군혁명', '선군정치'를 외쳤으며, 사상 진지 강화의 가장 유효한 무기가 바로 충성과 효성 등 정신도덕적 자발성을 환기하는 주관적 의지의 강조였다. 한때 '봉건통치배의 반동적 도덕윤리'라 매도했던 유교문화 전통의 부정적 계승이라 할 이런 방식의 무조건적 충성과 개인 윤리의 사회화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조선대백과사전』, 제11권(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9).

『철학사전』(평양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 서울 : 도서출판 힘, 1988년 재출간).

김효삼,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 『근로자』, 5호(평양 : 근로자사, 1991).

윤정수,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주체적 이해”, 『철학연구』 1호 (1993).

『문학신문』.

### <2차 자료>

강만길, 『21세기사의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서울 : 삼인출판사, 1999).

금장태, 『한국 유교의 이해(종교사회총서 2)』(서울 : 민족문화사, 1992).

김갑철, 『북한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서울 : 문우사, 1984).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서울 : 책세상, 2001).

김수용 외, 『유럽의 파시즘』(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현대정치와 사상과 행동』(서울 : 한길사, 1997).

배종호, 『한국 유교의 과제와 전개』(서울 : 범학사, 1987).

브루스 커밍스, 김동노 외 역,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서울 : 창작과비평사, 2001).

- 송영배, 『유교사상, 유교적 사회』(서울 : 남풍출판사, 1992).
- 김 철, “민족 민중문학과 파시즘 : 김지하의 경우”, 『국문학을 넘어서』(서울 : 국학자료원, 2000).
- 김 철, “파시즘과 한국 문학”, 『문학 속의 파시즘』(서울 : 삼인, 2001).
- 백문임, “정치의 심미화 : 파시즘 미학의 논리”, 『문학 속의 파시즘』(서울 : 삼인, 2001).
- 신형기, “가상의 인격, 도덕의 광기”, 『문학 속의 파시즘』(서울 : 삼인, 2001).
- \_\_\_\_\_, “남북한 문학과 정치의 심미화”, 『문학 속의 파시즘』(서울 : 삼인, 2001).
- 안병주, “한국의 현대화와 유교”, 『유교사상연구』, 제4집(서울 : 유교학회, 1992).
- 윤사순 외,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전통과 가족”(좌담),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5호(2000).
- 이문웅, “북한의 사회문화적 반동—사회조직 및 신앙체계를 중심으로”, 한상복 편, 『한국인과 한국문화—인류학적 접근』(서울 : 심설당, 1982).
- 이숙인, “유교 가족원리의 공동체적 의미”,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5호(2000).
- 이현경, “북한의 유교문화 실태 연구”,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 조용관, “북한의 가정문화정책과 가정윤리”, 『1994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제2권(서울 : 통일원, 1994).
- 조희선, “조선조 가부장제 가족주의의 실현과 여성생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5호(2000).

차승기, “민족주의, 문학사, 그리고 강요된 화해”, 『문학 속의 파시즘』  
(서울 : 삼인, 2001).

최문규, “파시즘 문학의 담론과 정치적 기능”, 『인문과학』, 78호(1998).

최원식, “탈냉전 시대의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7).

溝口雄三, 『방법으로서의 중국』(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1989).

<Abstract>

## Ideology of Loyalty and Filial Piety of *Juche* Literature in 1990

Kim, Seong Sul(Sungkyunkwan Univ., Korean Literatur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Confucian themes(i. e. ideology of loyalty and filial piety) in North Korean *Juche* literature of the 1990s. First, I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uche* thought and Confucianism. Despite the fact that *Juche* thought apparently balked at Confucian doctrine, it accepts the doctrine of filial piety and loyalty, which it regards as vulgar attributes of Confucianism. Consequently, I examine the theory and works of *Juche* literature of the 1990s. These seem to emphasize loyalty and filial piety to the patriarchal leader of the Communist party. Here, loyalty and filial piety expanded from moral doctrines to aesthetic principles. Why is such attention paid to loyalty and filial piety in 1990s' literature? It is the assessment of this study that leaders in North Korea were forced to mobilize feudal ethics, which were previously discarded, to prevent a collapse of the established order in the North. In this regard, veneration of a particular person through literature proved to be a viable means of enhancing the ideological education of the population.

Keywords : North Korea, *Juche* literature, Confucianism